



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면확대가 아닌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


'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고소득층에 대한
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연금 등
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

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이 커진 것은 감세가 아닌
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

* (건강보험 징수액, 조원) '2169.0 → '2276.4 (10.7%),
(국민연금 징수액, 조원) '2151.3 → '2254.4 (5.9%),
(고용보험 징수액, 조원) '2112.6 → '2214.5 (15.1%)

2024.3.11.(월) 연합뉴스

“윤정부 감세·비과세 ‘고소득층’ 집중...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”
보도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

 기획재정부